



2면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본격 운영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음 11월 26일) 제316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방정부 교류 협력 정상화

김 지사, 33년 교류

日 가고시마현 방문

코이치 지사와 간담서
실질 교류 활성화 논의
풀뿌리 외교 중요성 언급히오키시 소재 심수관
 명예총영사관서 열린
공예품 전시 기념식 참석

전북의 경제통상과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일본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가고시마현 청사에서 시오타니 코이치 현지와 지방정부간 교류확대분야에 대한 간담회를 손을 맞잡고 있다.

가로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물이다. 한국 정부는 2014대, 2015대 심수관을 대한민국 총영사로 임명하고 있다.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을 겸하고 있는 심수관 도예관에 한지공예, 옷칠공예, 자수, 모시발 등 전북의 문화작품을 전시해 한국 문화의 중심지 전북을 일본인들에게 전했다.

이번 전시는 기간 한정성이 아닌 상시 전시로, 한지장(김해미자), 태극선(방화선), 옷칠(박강용), 자수(신덕순) 등 전북을 대표하는 작가 작품 약 24점이 전시된다.

개막식에는 이종섭 주후쿠오카 부총영사, 나가야마 요시타카 히오키 시장, 마츠시타 타다시 가고시마현 국제교류협회 전무이사, 카와바타 타카노리 일한친선협회장, 이재현 민간회장을 비롯 가고시마현 주민들이 함께 했으며, 개막공연으로 남원 시립국악단이 판소리와 한량가를 선보였다.

전북도와 일본 가고시마현은 지난 1989년 10월 30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올해로 교류 33주년을 맞아 친구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그동안 양 지역은 행정을 중심으로

로 청소년 문화, 농업 대학, 의회, 방송, 민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왔으며, 교류 초기에는 양 지역 공동 주력사업인 농업 분야에 있어 공무원 단기연수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특히 국제선이 다니는 가고시마현 공항에 전북도가 추천한 한국인 직원을 현재까지 10명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역교류의 모범이 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6일 시오타 코이치 가고시마현지사와 가진 공식 간담회에서 풀뿌리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양 지역이 함께 그 옛날 도공이 걸던 길을 따라 새로운 경제협력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며 전북과 가고시마현 간 교류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코이치 현지사는 “김관영 도지사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연기됐던 가고시마와 전북도의 교류가 이전보다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에서 시민들이 눈 사이를 지나고 있다.

도내 곳곳 폭설·한파... ‘냉동고’ 방불

19일 오전까지 서해안 중심 15cm 이상 눈 예상

도,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2단계 유지 중

전북지역이 폭설과 한파로 인해 냉동고를 방불케하고 있다.

18일 현재 전북에는 최고 36.8cm(군산 말도)의 눈폭탄이 쏟아졌고 익산과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장수, 무주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전북지역에는 지난 16일부터 군산 20.7cm, 고창 16.2cm, 임실 14.6cm, 김제 14.5cm 등 평균 9.1cm의 눈이 내렸다.

19일 오전까지 전북 북동내륙을 제외한 서해안 등을 중심으로 많게는 15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눈으로 18일 오전 6시 현재 인명·시설 피해 등은 접수된 바 없다.

다만 남원 지리산 고기상거리~달궁삼거리, 장수 장남재, 고창 무장면 방고개, 고창 솔재 구도로 등 4개 노선

29.1km에 대한 통제가 진행됐다.

도내 여객선은 전 항로가 결항됐으며 항공기 노선은 18일 오전 결항됐다.

전북도는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강비와 인력 등을 동원해 도내 744개 구간에 대한 도로제설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도로 결빙과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등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폭 완화

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 개정 추진...의회 의결후 시행 예정

전북도는 내년 3월 1일부터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16일 전북도는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지방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완화를 위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1989년부터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 투자사업 및 재해복구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해왔다.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1,600cc 이상~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의 6% 매

입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각각 인하된다.

또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1,000cc 이상~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채권 의무매입 제도개선 방안은 내년 1월 조례안 입법예고, 2월 의회 심의 등을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지역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주최/주관 전북대학교 후원 국립대학육성사업

개교 75주년 송년음악회에 지역민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22. 12. 21.(수) 오후 7시 · 장소 :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

※ 일정 등 변경 가능

1부 한국음악학과 19:00 ~ 19:40

· 국악관현악 - 남도아리랑
· 창과 관현악 - ‘속대머리’, ‘세상경계’
· 사물놀이 협주곡 - ‘심모듬’ 3악장

협연 : 김지숙, 조통달, 사물광대

2부 전문 오케스트라 19:55 ~ 20:45

· 그리운 금강산
· 하모니카 협주곡 - 톨레도
· 쇼스타코비치 왈츠 NO.2
· 라데츠키 행진곡

협연 : 양두름, 이윤석

※ 공연 입장권은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관계로 조기에 소진될 수 있습니다.